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4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7.10(금)

7·15 총파업, 현장에서부터 결의를 모았다

경주지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 진행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7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경주지역 각 지회에서 7·15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지부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이번 순회는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현장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7월 8일(수)에는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 부원위원장이 경주로 찾아 지부와 함께 각 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7·15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지회별 준비 상황과 의견을 확인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은 고용이다. 회사는 물량 감소와 전기차 전환, 해외공장 확장을 말하며 현장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 조합원

의 일자리와 생계가 회사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은 경주지부 사업장도 원청 물량과 단가에 따라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원청이 물량을 줄이면 일감이 줄고, 단가를 낮추면 임금과 노동조건이 압박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원청은 책임을 피하고, 그 부담은 부품사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하고, 물량문제와 고용불안을 한 사업장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에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요구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7월 15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26일 2차, 9월 2일 3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합원들의 일자리, 가족의 생계, 앞으로의 현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번 현장순회에 이어 경주지부는 이번 순회를 바탕으로 각 지회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조직화에 집중하고, 7월 15일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방침이다.

7·15 총파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고용을 지키고, 원청의 책임을 묻고, 현장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고, 7월 15일 총파업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금속노조 7.15 총파업
2026 함께 싸우자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서울대회	15:00 동화면세점 앞 (서울·인천·한국지연·기아차지부 참가)
경기	15:00 회성축매지회 앞
경남	15:00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
경주·구미·포항	13:00 경북본부 결의대회(포항)
광주전남	15: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구	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북	14:00 충주 모비스 앞
부산양산	15:00 부산시청 앞
서울	13: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대회
울산	14:00 울산시청 앞
전북	15:00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
충남	14:00 천안 야우리

